# 해 외 단 신

▼

*본 기사는 한국통신 대외협력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World Telecom News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근착의 해외 단신을 통해 전기통신의 흐름파악에 참조를 바라는 바이다.*

## 미 국

### 미·일간 전기통신정책대화 정기개최에 합의

새로운 전기통신 정책대화의 장은 1993년 4월 중순 미·일 수뇌회담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실시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인해 일본 우정성이 미국에 요청한 것이다.

1993년 가을에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회의를 열고, 1994년 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우정성은 여러가지 주제를 거론할 방침으로 그 중에서도 광섬유나 디지틀교환기를 이용한 차세대 통신망 정비에 관한 것이며, 고도통신망 정비에는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기업이 슈퍼 컴퓨터나 광섬유 판매에 관심을 나타낼 공산이 크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미·일간의 통산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High-tech 중시」가 클린턴정권의 모토인만큼 미래형 기술에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자세를 전면에서 내걸고 있다.

이에 일본측으로서는 밀접한 의견교환과 공동연구·개발 등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차세대 통신망을 둘러싼 마찰발생을 방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미·일이 기기개발 등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체제구축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포르투칼, 피지등의 국가에 데이타망의 식별번호(DNIC) 배정

미 FCC는 Network Users Group사에 대해 CCITT권고 X.121에 따라 데이타망 식별부호(DNIC:Data Network Identification Code)를 「W-DI NET Packet」으로 배정했다.

피지 체신부는 Fiji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사에 대해 CCITT권고 X.121에 따라 데이타망 식별부호를 「FIJINET」로 배정했다.

포르투칼 체신부는 Redes de Comunicacoes사에 대해 CCITT권고 X.121에 따라 데이타망 식별부호를 「COMNEXO」로 배정했다.

###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지역 통신망확장에 협력하기로 합의

미국과 일본은 1993년 4월 하순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지역의 통신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우정성에 따르면 일본의 공식적인 개발원조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이동통신망 확장사업

을 도울 계획이다. 일본 우정성은 기존의 전화회선을 이동통신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 태국, 필리핀의 통신망 확장을 위해 세계은행, ADB로부터의 차관과 함께 이들 국가에 개발원조를 제공해 왔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사치로 생각되는 이동통신망확장을 위한 원조를 거절해왔었다.

## C&P 전화회사, 「Video Dial Tone」에 대해 최초 승인 취득

미국 FCC는 1993년 3월 하순에 Chesapeake and Potomac Telephone Co. of Virginia (C&P)사가 북부 Virginia 지역에서 기존의 동선을 통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비대칭디지틀가입자회선(ASDL :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기술을 사용한 「Video Dial Tone」시험을 하도록 허용했다. C&P사는 2년간에 걸친 시험을 제안했지만 FCC는 단지 1년만에 허용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FCC는 현장시험의 제한된 범위를 인용하면서, 동선장비의 비용이 비디오서비스와 전화서비스 양쪽에 할당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할권의 분리에 관한 문제 등의 날카로운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이로써 C&P사는 FCC의 새로운 Video Dial Tone 규정하에서 일반 전기통신운용체(Common Carrier) Video Dial Tone Platform을 구축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첫 시내교환운용체가 된다. Video Dial Tone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한 다른 운용체의 신청은 FCC에 계류중이다. NewYork Telephone사는 미국 맨하탄에서 Liberty Cable사와의 현장시험을 제안했으며, New Jersey Bell Telephone사는 뉴저지주의 모리스주, Dover Township 지역에서 Video Dial Tone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한 권한부여를 요청했는데, 뉴 저어지 벨사의 요청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2개 지역의 CATV 운용체에게 Video Dial Ton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0년간 합의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 이동통신업계, TDMA와 CDMA중 표준을 조속히 결정토록 정부에 촉구

세계 디지틀 셀룰러 시장에서 미국방식보다 유럽방식인 GSM 규격을 채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의 셀룰러 통신업계는 위기감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동체 통신의 세계시장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조사중인데 ITC는 미국업계의 의향을 1993년 6월까지 마무리지어 미국 의회의 상원 재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재 미국의 아나로그 이동통신 방식인 AMPS를 채용한 가입자는 세계 셀룰러 시장에서 60%~7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아나로그 방식으로는 멀지않아 급증하는 가입자들의 포화시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디지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 태평양, 중동에서 AMPS를 채용하더라도 디지틀 도입시에는 GSM으로 변경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미국 셀룰러 통신공업회(CTIA)는 경계감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대만, 태국에서도 여러 디지틀 셀룰러 사업자 중에서 적어도 1개 회사를 GSM방식으로 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GSM보급에 대해 셀룰러 전화기 메이커인 플렉시스 인터내셔널사의 오제 회장은 1995년까지 세계 디지틀 셀룰러 가입자 중에서 GSM이 12%를 점할 것이라고 ITC에 증언하면서 미국 디지틀이동통신 방식의 확산 유지를 위한 미국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향후 미국업계 관계자는 표준화 제정 관련 국제기관의 의결에서 유럽이 약 30표인데 비해 미국은 1표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불공정의 시정과 해외의 셀룰러 사업진출에서 업자에 대한 자금원조를 늘려줄 것을 미국정부에 촉구해 나간다고 한

다.

### 기업과 정부 및 금융계에서 EDI 보급 본격화

미국의 기업, 정부 및 금융계에서 EDI(Electronic Document Exchange)의 유용성이 널리 인정받게 됨에 따라 미국의 시스템 통합업체들과 컴퓨터시스템 유통업체들은 EDI를 필수 전략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EDI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표준 문제인데,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은 UN/EDIFACT (United Nations Rules for 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및 CCITT 권고 X.12이다. 이외에도 약 30여종의 EDI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EDI기술의 응용에는 다양한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및 데이타를 변화시켜 주는 변환 소프트웨어와 EDI Gateway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HDTV개발 3개 그룹 공동 표준규격 합의

미국의 고선명(HD)TV 표준규격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여온 미 HDTV 개발 3개 그룹이 조만간 공동 표준규격 마련에 합의할 전망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HDTV표준규격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단계에까지 오른 AT&T · 제니스연합, 제너럴 인스트루먼츠(GI) · MIT대 연합, 톰슨 · 필립스 · NBC연합등 3개의 미 HDTV개발그룹은 지난 3개월간 각기 벌여온 표준선정 경쟁을 포기하고 3자의 기술을 절충한 공동표준규격을 개발한다는데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 공동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3개그룹 협상에 직접 참여한 조셉 도너휴 톰슨사 수석 부사장은 「HDTV보급과 같은 막중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두 개 업체만의 힘으로 HDTV 사업을 성공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이번 협상에 참여한 업체대표들 간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해 이들 3개그룹간에 상당한 수준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 일 본

### 우정성, 통신과 방송의 융합문제를 검토

일본 우정성은 최근 통신기반 고도화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법 제도나 정책지원면을 중심으로 통신 · 방송의 미디어 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우정성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에서 광섬유망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의 융합문제를 집중 심의하여 답신이 나오는 1994년 봄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을 표방할 방침이다.

전화나 FAX와 같은 통신 미디어와 TV, 영화 등의 방송 미디어는 현행 법제상에서는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 등 개별 법률하에서 정비되어 있다.

일본 우정성 통신정책국장의 사적연구회인 「미디어 소프트웨어 연구회」는 1993년 5월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관한 정책 제언을 마무리 한다. 이 제언에는 미디어의 융합화에 대비하여 영상 소프트웨어의 유통시장 정비 등의 정책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우정성은 이러한 제언을 받아들여 종합 경기대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차세대통신 모델계획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실험 이외에 법체계도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ASCII사, PC로 TV전화 가능하게 개발

일본 아스키사와 관련회사인 GC Technology사는 1993년 4월 19일, PC화면으로 TV전화를 걸 수 있는 반도체 세트와 운용 소프트웨어인 「어느 곳에서나 문」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휴대형 PC에 접속시키면 동화면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다. 1993년 4월 21일부터 일본 국내외의 PC 메이커에게 판매한다. 1993년내에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화상 TV전화가 더욱 친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은 반도체 세트를 PC

에 접속해 가정용 비디오로 찍은 영상을 ISDN을 통해 서로 보낼 수 있다. TV전화에 필요한 기능이 반도체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는 소프트웨어인 「어느 곳에서나 문」으로 실제 운용하는 형태이다.

부재시에는 처음부터 녹화한 영상으로 상대에게 응답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의 전달내용도 하드웨어에 기억시켜 영상과 음성으로 재생하는 부재녹화기능도 내장되어 있다. 이용할 수 있는 PC통신의 기종은 IBM기와 그 호환기이다.

일본 아스키사와 GC Technology사가 PC메이커에게 OEM으로 공급하여 메이커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서 판매하게 된다. 초년도에 2만 세트를 판매할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반도체 세트와 소프트웨어 1식에 95만엔(한화 684만원) 정도로 아스키사는 보고 있다.

### NTT Data사, FAX 및 PC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설립

NTT 데이터통신사는 1993년 4월 1일 일본기상협회, JR그룹과 항공사 등 운수 각사와 공동으로 FAX나 PC통신을 사용해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기상정보나 레저정보 등을 불특정다수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상청은 민간기업이 기상청의 정보를 사용해 사업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사업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93년 4월 1일부로 설립한 것은 「하렉스」사로 자본금은 5억6,200만엔이다. NTT 데이터사가 35.6%, 기상청의 외부단체인 일본기상협회가 8.9%, JR 그룹 7사가 15.5%, 일본항공사, 전 일본사 등의 항공업계 각사가 10.1%를 출자한 것 외에 내항해운업계, 사철업계 등 모든 67개사 단체가 출자했다.

### 우정성, 개발도상국의 통신망 확장은 무선통신방식이 더 효과적

일본 우정성의 「개발도상국의 통신기반 정비를 위한 무선시스템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회」는 1993년 4월 24일 중간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중에는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등 대도시에서 새로 전화를 정비하는 경우, 셀룰러전화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인구 800만명급의 대도시에서 가입자전화 10%의 보급률을 20%로 증가시킬 경우, 무선셀룰러전화시스템이 유선전화시스템과 거의 같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무선시스템은 운용, 보수가 용이하고 건설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 종래의 무선시스템보다 월등하다. 앞으로는 무선시스템에 대해 (1) 운용·보수비용을 포함한 년 경비 (2) 투자자금의 조기회수효과의 관점에서 유선시스템과 비교한다.

## 유 럽

### 독일 Simens사, 불가리아에 전화교환기 8만회선 공급계약 체결

독일 Simens사는 불가리아의 수도인 Sofia와 불가리아 북부지역의 통신망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 Simens사의 EWPS 디지틀 전화시스템 8만회선의 공급계약을 따냈다. 이 계약은 불가리아의 국영 전기통신공사인 BTC사에 의해 체결되었다. 1992년에 Simens사와 불가리아의 GIGICOM사에 의해 Sofia에 설립된 합작기업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TC사는 Simens사로 하여금 흑해변의 휴양지인 Varna지역에 디지틀 통신망을 설치하도록 Simens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불가리아는 1970년대 중반부터 Simens사의 License하에 전화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구동구권 지역에서 인구 1인당 전화보급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 프랑스, France Telecom의 민영화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프랑스 FT의 민영화가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우파 신정권은 1993년 6월 의회에 민영화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빠르면 1994년 말에 FT의 일부 주식이 매각될 전망이다.

프랑스 신내각에서 론지 체신

부장관이 취임, 갑자기 FT의 민영화론이 활발해 지고 있다. 론지 장관은 FT를 정부직할의 전화사업체로부터 공사제로 이행한 때의 체신장관으로 이번 내각에 다시 취임하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안에 따르면 주요 각료의 지지를 얻은 다음 1993년 6월에 민영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으면 1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당초 전 주식의 10%를 매각한다. 그러나 최고 70%까지 매각한다고 하는 것이 관계자의 관측으로 FT의 주식자산은 2,000억 프랑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EC위원회가 촉구하고 있는 전 유럽 차원의 전화서비스 시장개방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민영화되면 시장개방의 움직임에 활력을 띄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그 외의 유럽 각국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최대의 전화사업체인 독일 DBP Telekom에서도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노조의 반대도 있어 빨라도 FT와 같이 1994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아일랜드 통신공사, 국제전화요금 인하

아일랜드의 국영 통신회사는 국제전화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택가입자 요금과 일부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입을 도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요금의 변경은 통화요금을 더욱 원가에 가깝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유럽전역에 걸쳐 통화요금의 재균형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전화요금은 1993년 9월부터 16~59%를 인하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러한 요금변경에 몹시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기업들은 좀 더 싸진 국제통화요금의 기대로 이번 요금 변경을 환영했다.

### EC, 아나로그방식 HDTV개발 계획 영국의 반대로 무산

EC는 1993년 5월 10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EC 통신장관 이사회에서 차세대 TV인 HDTV 개발계획을 협의했다. 그러나 영국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론은 1993년 6월 이사회로 미루게 되었다.

EC는 HDTV개발에 지금까지 필립스사 등이 개발한 아나로그 방식이 「HD-MAC」방식을 채용, 1992년 12월에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은 계획추진을 위해 5년간 5억 ECU(한화 5,000억원)을 지출한다는 안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HDTV개발에는 디지틀방식의 진보가 눈부신 미국의 우위에 있어 EC의 아나로그 방식은 시대에 뒤쳐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의장을 맡고 있는 덴마크는 1993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① 디지틀 방식도 조사한다. ② 아나로그 방식 개발에 대한 지출에는 2억8,500만 ECU로 삭감한다는 등의 타협안이 제시되었는데, 영국은 아나로그 방식 개발에는 1억 5,000ECU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기 타

### 말레이지아, 이동통신사업을 위해 캄보디아에 합작 추진

캄보디아의 DTP(Directorate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와 말레이지아 소재의 TRI(Technology Resourcers Industries)간의 합작기업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900MHz ETACS 아나로그 셀룰러 전화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이 통신망은 하나의 이동전화 교환기와 5,000명 가입자에게 제공할 용량을 갖춘 250개 채널을 가진 3~4개의 기지국(Base 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신망은 2~3년내에 전국을 수용한다는 계획과 함께 점차 다른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RI사가 8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합작기업은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바탐망 지역 및 캄폰송 항구를 연결하는 마이크로 전송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차세대 통신위성인 「파라파C」를 1995년에 발사

인도네시아의 통신회사인 새트린드사는 차세대 통신위성인 「파라파C」를 1995년부터 발사하기로 정했다. 국영 PT

Telecom사로부터 위성사업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상업위성사업의 기초를 완성시키자 위성을 Hughes Aircraft사에 발주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위성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은 Hughes Communication International사에 발주했다. Hughes사는 HS601형 위성 2기를 제조하여 1995년 8월, 1996년 2월에 각각 「파라파 C-1」, 「파라파 C-2」의 이름으로 인도한다. 전세대에 해당하는 「파라파 A」, 「파라파 B」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것이다. 이때의 발주원은 PT Telecom사이었다.

## 태국, 전화 100만회선 공급업체로 프랑스와 일본 선정

태국에 100만 전화회선 구축을 위한 계약권을 부여받은 태국 TT&T(Thai Telephone &Telecommunication)사는 프랑스 Alcatel사와 일본의 Sumitomo사를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방콕발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태국 TT&T사에 2번째의 25만회선 구축을 위해 Alcate사는 교환장비를 공급하고, Sumitomo사는 전송장비를 공급한다고 TT&T사 대변인이 밝혔다. 프랑스의 Sofricom사 역시 TT&T사 고객 서비스를 위해 15억 Baht상당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급한다.

TT&T사는 정부소유의 전화공사인 TOT사로부터 방콕 이외 지역 및 방콕 교외지역에 100만 회선을 설치하도록 25년 간의 면허를 얻었다. 1994년 중반까지 태국 24개 지방에 첫 220,032회선을 설치할 것이라고 이 회사는 말했다.

## 파키스탄 통신공사(PTC), Alcatel Pakistan사에 전화교환기 14만회선 공급 요청

파키스탄 통신공사(PTC)는 Alcatel Pakistan사에 13개 중계센터 건설 및 14만회선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Alcatel사는 현재 턴키방식으로 파키스탄에 거대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디지틀 교환기와 더불어 200km의 광섬유 회선도 구축한다. Alcatel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총 60만 회선의 공급요청을 받음으로써, 파키스탄에 디지틀 통신망 시스템을 가장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다.

Alcatel사는 현지 생산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PTC사의 요구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변경한다. 새로운 생산공장은 1992년 10월 설립되었다. 파키스탄은 Alcatel사의 첫 디지틀 교환기를 1983년에 공급받았다.

## ITU, 환율고시를 Bulletin에 게재 않기로 함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고시해왔던 국제통신요금 정산을 위한 Gold France(GF)에 대한 해당국가 화폐와의 환율고시를 ITU의 Operational Bulletin(운영안내게시판)에 더 이상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 관해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해당국가의 관련자에게 문의하여 해당정보를 얻어야 한다.

## 캐나다, 일본시장 공략위한 정보기술등 7개 분야 행동계획 발표

캐나다의 윌슨국제무역장관은 1993년 5월 17일 캐나다 앨버터주 뱀프에서 시작한 日-캐나다 경제인 회의 석상에서 정보기술 등 7개 분야에서 캐나다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캐나다 행동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일변도적인 일본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행동계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기술 이외에 수산물, 건설재, 가공식품, 자동차부품, 관광, 우주산업의 7개 분야이다. 캐나다 정부나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① 일본시장의 이해증진 ② 5~1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전략 구축 ③수요에 맞는 제품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일본 무역진흥회도 협력해 나간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제품구입 요구는 아니나, 일본시장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